

K리그 진단에 中 관광객 유치까지 ... 톡톡튀는 주제 눈에 띄네

전남 고교생 학술대회 소논문집 보니

■. 함평여고 학생들은 지역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 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학생들이 ‘안’과 ‘않’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또 ‘유음화’에 대한 다문화 학생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화순고 학생들은 체험·차별성을 선호하는 중국 관광객 트렌드에 맞춰 화순 적벽·정음성 기념관·운주사·주자 묘와 무등산 양떼목장, 화순치즈체험학교를 중심으로 ‘화순 속 작은 중국’이라는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볼 것을 제안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6 전남 고교생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소논문들이다. 학술대회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개최한 ‘소논문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3회째에 접어들면서 논문 수준을 비롯, 독창성·창의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게 정책연구소 이정희 교육연구사의 설명이다.

바탕으로 기온·일교차·습도 차이로 인한 감기·알러지 증상을 비교하는가 하면, 일정 기간(2016년 3월25일~10월10일) 내 보건실 보건일지를 분석해 학년별 감기 환자 수와 기간 등을 들여다봤다.

학생들은 분석한 보건일지를 통해 ‘감기 환자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구간에서 가장 많고 누그러지는 듯 했다가 시험 기간인 4월 말~5월 초 증가하고 있다’, ‘3학년은 감기가 유행하면 다른 학년에 비해 걸리는 학생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4월 중·고사 기간, 환자 급증의 원인을 움직이지 않고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체력 저하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데 주목하고 5월 학교 체육대회를 감기 환자 급증과 연관짓는 분석과 예방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영여고 명수민·김애린·이가영·김현서 학생은 공통계열 학생 60명, 인문계열 학생 171명, 자연계열 학생 138명에게 주요 소비물품·구매장소·소비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설문조사한 뒤 기업의 광



여수여고 학생들이 ‘여수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및 친환경 비닐 제작’이라는 소논문 활동 과정에서 전분으로 비닐을 만들기 위한 실험 등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제공>



요성을 언급했다. 목포고 정문광·최민석군의 ‘신안 선으로 본 일본 귀족의 차문화 양상’이라는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톡톡 튀는 주제들 눈길=화순고 박초희·추가영·나혜진·전예린·이정민 학생의 ‘색깔과 암기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파란색이 집중력과 암기력을 높여 성적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검증해보겠다는 참신함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토레 남·여 학생 36명의 혈압을 빨간색 방, 파란색 방에서 1분 20초간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었을 때로 나누는가 하면, 감정, 빨강, 파랑 잉크로 인쇄된 시험지에 나라와 수도 이름을 쓰고 각각의 색깔 펜을 나눠주고 3분 동안 외우게 한 뒤 집중력과 암기력을 분석, ‘파란색 펜을 이용하여 암기하였을 때 다른 색의 펜을 이용한 것보다 암기력이 더 높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재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목포홍일고 김명규·김민재·정성용·고건 학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축구를 논문 주제로 선택했다. 이들이 내놓은 ‘K리그 이빨 빠진 호랑이?-K리그 현주소와 미래’라는 논문은 홍일고 1~2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K리그를 향한 시선’ 등을 묻는가 하면, 현 K 리그 위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본 뒤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위한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능주고 임창명·정재영군은 ‘2016년 한국프로야구 MVP 수상자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논문에는 지난 1982년~2015년까지 MVP 수상자, 후보자들의 기록, 2016년 MVP 후보자 기록을 타자, 투수로 나눠 분류하고 MVP 수상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와 투수, 타자별 MVP 수상 확률 등이 담겨 있다.

◆소논문, 왜 중요인가=교육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논문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 적도록 했다. ‘소논문 대필학원’ 등이 생기는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유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소논문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데다, 소논문 쓰기를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적지 않다는 게 교육계 평가다. 광주·전남교육청이 학교 소논문 동아리 활동 및 논문집을 지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2개 일반계고 357명 학교 생활·진로 조사

학생 창의성 길러주고 사교육 유발 우려 차단

역사인식·지역이슈·MVP 예측 등 논문 관심

전남 고교생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사회의 이슈를 창의적 관점에서 분석, 연구한 결과를 제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소개됐던 ‘고흥 커피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망’<고흥고>이라는 논문은 고흥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기후온난화 등을 분석, 고흥의 커피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기도 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남 32개 일반계고 1~2학년 학생 357명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일상 생활 속 주제부터 학교 생활, 진로, 지역 사회 이슈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인문·예체능 33편 ▲자연과학 43편 ▲사회과학 31편 등 소논문 107편을 발표했다.

◆일상·사회 문제, ‘젊은 시각’으로 접근=목포 마리아회고 김재한·나원호·기우진·최종혁·정도원 학생은 학교 보건실을 드나드는 학생들의 보건일지를 분석, ‘학생들의 질병·상해에 대한 개괄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학생들은 매일 10~30명 넘게 이용하는 보건실 보건일지를

고전락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논문을 제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목포홍일고와 순천팔마고, 광양고 학생들은 각각 ‘일제가 남긴 민족혼’, ‘사극의 역사왜곡이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광양지역 고등학생들의 역사 인식 조사’ 등의 논문으로 토레 학생들의 시각을 살펴봤다.

◆나고 자란 지역 이슈에도 관심=화순고 박소연·김진아·허가연·최은비 학생은 ‘유커 천만시대, 내고장 알리기’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 현황·특징을 분석한 뒤 호남지역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마 상품 ‘화순 속 작은 중국’을 제안하기도 했다. 적벽·정음성 기념관·무등산 양떼목장·화순 치즈체험학교·주자 묘 등을 중심으로 화순과 중국의 연계성을 짜임새 있게 나열해 상품으로 제시한다면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들 구상이다.

여수화양고 김시연·임사현·황현민·정보경·이



고흥고 학생들이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이정희 교육연구사에게 소논문 쓰기 활동에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제공>

지연·황다빈 학생은 ‘여수 돌산 갯김치의 특징·성분·재배 현황·판매가격을 비롯, ‘여수 돌산 갯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들이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갯김치 홍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함평여고 박아름·김시연양은 함평의 대표적 축

제인 국향대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대형 국화조형물과 맞춤형 국화조형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수숫대를 이용한 공작물 및 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국화분재 전시 등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

송원대, ‘철도 아카데미’ 개설 ... 전문인력 양성 나서

송원대가 ‘철도아카데미’를 개소,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송원대는 지난달 학교 체육관에서 ‘송원 철도아카데미’ 개소식을 갖고 철도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

다.

철도아카데미에는 스크린 등을 통해 다양한 주행노선과 역사의 운송환경을 제공, 실제 전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교육용 연습기(전

기능·기본기능 모의운전 연습기)를 갖추고 있다.

학교측은 철도아카데미가 철도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호남 유일의 교육 기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지역 철도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원대는 앞서 사립대 중 처음으로 철도경영학과를 설립(1996년)한 이래 2017

학년도부터 철도운전시스템학과(30명)와 철도경영학과(30명)를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코레일 광주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도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 단신

▲조선대, ‘CU 어게인 7만2천 페스티벌’ 개최=조선대는 10일 오후 3시 교내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CU 어게인(again) 7만2000 비전 페스티벌’을 연다. ‘어게인 7만2000’은 조선대 설립이 7만2000명의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이뤄진 점에 착안한 프로젝트로, 대학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조선대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발표=전남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목포·여수·순천 지역 평준화 고교 합격자 6744명의 배정 학교를 발표한다.

